

'현우경' 이야기 (11)

코끼리의 죽음

잠부드비파에 대광명이라는 왕이 있었다. 대광명왕에게는 이웃나라에 절친한 왕이 한 명 있었다. 둘은 귀중한 물건이 있으면 서로 나눠 가질 정도로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컸다. 어느 날 이웃나라 왕은 신하들과 사냥을 하러 나갔다가 우연히 새끼 코끼리를 발견했다. 코끼리는 백옥같이 하얗고 매우 사랑스러운 모습이었다. 왕은 코끼리를 보자마자 그 모습에 반해 코끼리를 궁으로 데려왔다.

"코끼리의 모습이 매우 아름다우니 대광명왕도 코끼리를 보면 좋아 할 것이다." 대광명왕은 코끼리를 보고 매우 기뻐했다. 대광명왕은 즉시 신하들에게 조련사를 시켜 코끼리를 훈련시키라고 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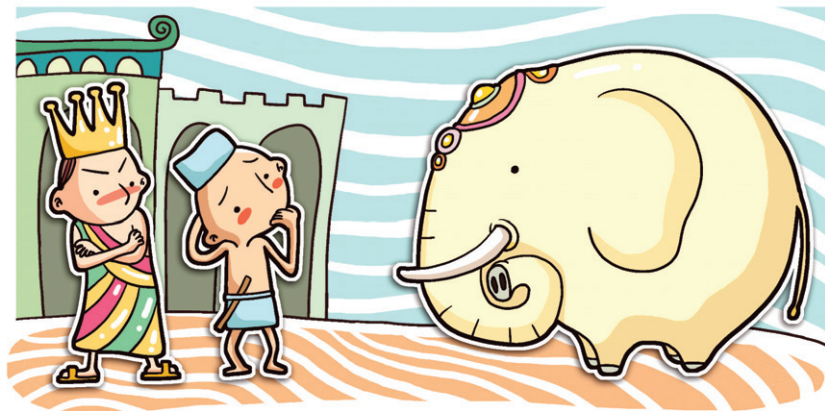
조련사는 대광명 왕의 명령을 받고 코끼리를 훈련시켰다. 얼마 후 왕은 조련사를 불러 물었다.

"코끼리는 훈련이 잘 됐는가?"
"코끼리는 제 말이면 무슨 말이든 다 들도록 훈련했습니다."
왕은 조련사의 말에 안심하고 성 밖 경치를 즐기려 코끼리를 타고 나갔다. 그때 갑자기 코끼리가 난폭하게 달리기 시작했다. 왕의 옷은 나뭇가지에 걸려 찢겨지고 온 몸에는 상처가 났다. 왕은 이리다 자신이 죽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

"어서 이 코끼리를 멈추어라."
조련사는 달리는 코끼리의 뒤를 쫓으면서 왕에게 나뭇가지를 잡고 코끼리에게 떨어지라고 말했다. 왕은 간신히 나뭇가지를 잡고 나무에 매달렸다. 가까스로 목숨을 구한 왕은 궁으로 돌아왔다. 왕은 자신이 죽을 수도 있었던 상황에 화가 났다.

"나를 해치게 하려했던 너와 코끼리를 두 번 다시 보지 않겠다."
며칠 후 코끼리가 다시 궁 안으로 돌아오게 됐다. 조련사는 왕을 찾아가 간청했다.

그때 철을 먹은 코끼리는 아난다이고...



삼화 · 강병호

"이 코끼리는 오직 전문성만인 얻을 수 있는 코끼리입니다. 작은 허물이 있다고 해서 버릴 수 없습니다."
"코끼리가 잘 훈련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면 난 코끼리를 타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사고를 내고도 너와 코끼리가 무사할 줄 알았느냐?"

"저를 버리시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코끼리를 버리는 것은 참으로 애석한 일입니다. 그래도 저와 코끼리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면 제가 코끼리를 다루는 모습을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왕은 조련사가 코끼리를 어떻게 훈련시켰는지 지켜보기로 했다. 조련사는 코끼리

를 왕 앞에 데려다 놓았다. 그리고 옆에 대장장이를 불러 세워줬다. 그는 대장장이에게 철을 빨갛게 달구라고 지시했다. 조련사는 코끼리에게 명령했다.

"달구진 철을 먹어라. 그렇지 않으면 너의 머리를 찢어놓을 것이다."
자신의 죽음을 직시한 코끼리는 죽기 전 눈물을 흘리며 왕을 바라봤다. 하지만 왕은 전혀 코끼리를 용서해 줄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결국 코끼리는 코로 철을 집어 삼켰다. 이 모습을 지켜본 왕은 깜짝 놀랐다.

"죽음을 따를 정도로 훈련이 잘 된 코끼리인데 어찌 숲 속에서는 그런 행동을 저지시키지 못했느냐?"
"저는 오직 몸만 다룰 수 있지 마음은 다스리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몸과 마음을 다 다스릴 줄 아는 이가 있던 말이나?"
"부처님은 몸과 마음을 다 다룰 줄 아

니다."
"부처님은 어느 가문에서 태어난 인물인가?"
"부처님은 지혜와 자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은 여섯 가지 바라밀다를 수행하고 공덕과 지혜를 갖춰 자신과 미혹한 중생들마저도 잘 다스립니다."
이 말을 들은 왕은 서원을 했다.

"앞으로 부처가 돼 마음을 잘 다스리고 중생을 잘 다스리겠습니다. 중생의 이익을 위해서는 지옥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왕이 서원을 세우자 하늘에서 하늘사람들이 내려와 음악을 연주하고 노래를 불렀다.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그때 철을 먹은 코끼리는 아난다요. 조련사는 사리푸트라였다. 나는 당시 대광명왕이었다. 그때 코끼리가 잘 훈련돼 순종하는 모습은 나로 하여금 말삼하게 해 불도를 구하게 됐다."
구성=이은정 기자 soe84@hyunbul.com

대장경 속 우화 13 - 달에 간 토끼 - 구성·김흥인

가끔씩 옥황상제는 노인으로 변신하여 숲속에 내려와 동물들을 제도하였다.

오늘은 저희들이 스승님의 은혜에 보답코저 양식을 준비하였습니다!

허허 그래! 솜씨를 한번 보자구나!

여우는 강에서 물고기를 잡아올렸고...

원숭이는 과일을 따왔다.

그러나 사냥을 할 줄 모르는 토끼는...

도토리나 까먹을 줄 알지 할 줄 아는게 없으니...

토끼는 몹시 부끄러워했다.

쫄쫄! 토끼 너는 도리를 모르는구나! 빈손으로 오다니!...

그러게 말아-

허허 고맙구나!

여우와 원숭이는 수확한 것을 진상하였다.

드시고 건강하세요~ 스승님!

스승님! 토끼는 드릴게 없답니다!

그... 그건 아냐!

바로 불을 피워서 맛난걸 해드릴거야-

그래?

모닥불을 피워 곧 불이 활활 타오르자...

이제 어쩔건데?

응응!...

노릇노릇 잘 구워졌을때 드시면 됩니다!

응응? 그게 무슨 말이냐?

토끼는 인사를 고하고 활활 타고있는 모닥불 속으로 들어가 몸을 넣었다.

어허! 저런! 저너석이...!?

놀란 옥황상제는 황금히 불속에서 타고있는 토끼를 고집어내었다.

옥황상제는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

어허~ 인석아! 어찌 그렇게 까지...!

살신성인 이라니!... 그저 놀랄도다!

모든 인간들의 귀감이 되도록 하여야겠다!

그 후로 달에는 토끼가 나타났고 사람들의 마음을 정화시켰다고한다.

창사 19주년 기념

마하연투어 성지순례

미얀마 성지순례

5월, 6월 출발

- 양곤 | 바고 | 시리암 5일 - 1,290,000
- 양곤 | 바간 | 헤호 6일 - 요금문의
-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 헤호 7일 - 요금문의

* 특급(세도나 또는 동급)호텔, 업그레이드 식사, 비자 포함
* 전 일정 특급호텔, 가이드 기사 팀, 호스카 포함 / 유류할증료 불포함

여행사 남녀 가이드 견습생 모집

- ◆ 해외 파견 견습생 2명
- ◆ 국내 연수 견습생 2명

서류제출 :
- 여권사진 부착 이력서 1통,
- 자기소개서 1통,
- 종단불문 사찰 주지스님 추천서 1통.

서울시 중로구 청진동 6번지 신영빌딩 303호 불교성지전문여행사 (주) 마하연 투어
문의 : 02)365-7747

- 인도 성지순례 9일 요금문의
- 스리랑카 성지순례 8일 요금문의
- 라오스 성지순례 6일 요금문의
- 지장도량 구화산 황산 관음도량 보타산 낙가산 7일 요금문의
- 대만 정통 성지순례 5일 요금문의

불교성지 전문여행사 ☎ 02)365-7747

불기 닦는일 힘드시죠!!
아주 쉽고 빠르게 닦이고 광택이 깨끗하게
친환경 다목적 금속광택제 이지 골드

촉대, 향로, 위패, 유기, 제기, 놋쇠, 은, 동, 신주 등 모든 금속류

특징

1.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2. 타제품 보다 닦기가 쉬워 시간이 절반이상 절약됩니다.
3. 코팅 광택약이라서 흠집이 나지 않고 광택도 오래 유지됩니다.
4. 습기에 강해 광택이 장기간 유지됩니다.
5. 인체에 해롭지 않게 피부보호제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6. 본제품은 10년간 사용하셔도 변질이 되지 않습니다.

용량 : 525g
사용기한 : 10년

문의 070-8262-9291. 010-5462-3620
농협 312-0029-1189-81 예금주 : 고태웅

영일상사

디자인특허등록 2010-0039035

황금위패

行孝 亡嚴父 南陽 后 人 肅 敬 禮 靈 駕

고급 밤나무 재질, 울칠 마감, 수작업 개금

음각으로 각인 후 금칠

하나하나 정성을 다한 수조각

규격: 大 / 中 / 小 의 다양한 규격

특대제사용위패(가정용)

대표전화 : 02-966-9650
휴대전화 : 010-8238-1511
팩스 : 02-921-9650
홈페이지 : www.dya.xo.st